

평화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추려지지 않습니다. 무한한 답이 있고, 영원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핵무기 보유, 지구온난화, 인종차별, 빈곤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저희는 조금씩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곳 나가사키에서 고등학생인 저희가 평화에 대한 서약을 선언합니다.

저희는 핵무기 폐기를 요구합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인간',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인간'. 이것은 원폭피해자 요시토미 야스미 씨가 줄곧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히로시마에, 8월 9일 11시 2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불바다가 되어 수십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살상무기인 핵무기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12000여 개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핵을 이용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는 확실히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에 처한 채로 핵을 억지력으로 보유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학생인 우리가 핵 폐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하려면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핵무기 보유는 다른 나라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거기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신뢰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많아지면 세상에 연대감이 생겨납니다. 그 연대감이 커지는 속에서 세계의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핵무기폐기에 가까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인간의 개발을 통해, 이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미 파리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대규모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면 변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코백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이러한 행동은 소각처리의 부하를 줄이고,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시민으로서 미래에도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세상은 피부색, 외모, 그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 등 다양성이 넘쳐납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적 박해 등 사람들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끼리 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명은 모두 평등합니다. 인류는 본래 있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우열을 결정해 왔습니다. 누구나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차별에 의해 생각과 행동이 부정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상대의 생각과 행동의 배경을 상상력을 가지고 '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지구시민으로서 먼저 저희 자신부터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인권을 해치는 부당한 노동을 용납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지구 환경 보전이 양립하는 세상을 창조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보람 있고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없는 나라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에서는, 부당한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구의 환경이 훼손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자원의 소비를 피하고 적은 자원 투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저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불합리한 노동조건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은 자원 투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창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윤리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 실현은 소망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과 의식에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다. 당신의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이 평화공동선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를 짚어질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평화의 바톤을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고 이를 지켜나갈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자' '자기실현에 투철하자 그리고 사람을 위해 살아가자'